



스타 포커스 김국영 100m 예선 시즌 최고 기록

100m 한국기록 보유자 김국영(광주시청)이 시즌 최고 기록을 보여줬다. 김국영은 8일 광주 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100m 예선 경기에서 10초30을 기록하며 가볍게 예선을 통과했다.



말말말 한지영 "메달 바라지도 않았는데 2관왕"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취재진 앞에 선 한지영(21·충북보건과학대)은 아직은 엄마·아빠의 품이 그리운 어린 선수였다. 지난 6일 김지혜, 조문현과 여자 25m 권총 단체전 금메달을 쏘았던 한지영은 8일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을 명중시키며 2관왕이 됐다.

광주자매 슛오프... 최미선 9점 쏘자 기보배 10 명중

리커브 결승 마지막 한발로 승패 기보배, 혼성경기 금 2관왕 등극

돌아온 국가대표 기보배(27·광주광역시청)가 광주를 대표하는 동생 최미선(19·광주여대)과의 '신궁' 맞대결에서 승자가 됐다. 기보배가 8일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 여자 리커브 개인전에서 광주여대 후배 최미선을 쏘오프 결전 끝에 6-5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를 대표하는 양궁 스타 기보배(광주광역시청·오른쪽)와 최미선(광주여대)이 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 종목 마지막 금메달을 놓고 개인전 결승을 치르고 있다.

올림픽 무대까지 접수했던 베테랑의 뒷심과 노련미가 돋보이는 플레이였다. 1세트 첫 발을 10점으로 출발한 기보배는 29-28로 세트포인트 2점을 먼저 가져갔다. 2세트를 29-29로 끝낸 두 사람의 기싸움은 3세트에서 불꽃을 튀겼다. 기보배가 중앙 과녁을 맞춘 뒤 9점에 두 발을 쏘아넣었지만 최미선이 '텐텐텐'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

6점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경기. 마지막 5세트에서 기보배가 3개의 화살을 모두 중앙에 꽂으며 5-5를 만들었다. 결국 혼성 결승전에 이어 기보배가 다시 쏘오프를 위해 사대에 섰다. 침착하게 10점을 쏘아넣은 언니 기보배, 동생 최미선의 화살은 9점에 향하면서 숨막혔던 대결은 언니의 승리로 끝났다. 런던 올림픽에서도 살 떨리는 쏘오프를 이겨내고 감격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기보배는 이번 대회를 통해 '쏘오프의 여왕'에 등극했다.

지난 가을 인천 아시안게임 대표팀 탈락으로 사대 대신 중계석에 서야했던 기보배는 자신의 양궁 고향인 광주에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밖에서 지켜본 시간이 오히려 좋은 선수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박재순 광주광역시청 감독은 "아시안게임은 한 박자 쉬어가는 시간이었다. 앞서 5년 동안 정상을 지켜왔던 선수다. 지난 시즌 지친 모습이기도 했고 무리하지 말고 하자고 했었다. 올림픽을 위한 한발 후퇴였다고 보면 된다. 해설자로서 역할을 해보도록 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밖에서 지켜보

면서 사대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스스로 느끼고 배웠을 것이다"고 제자의 우승을 기뻐했다. 기보배도 "해설위원을 하면서 선수들의 심리를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다. 해설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 긍정적으로 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며 "후배와의 대결이었는데 누가 금메달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광주시민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U대회에 나오면서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했는데 이렇게 응원에 보답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활짝 웃었다.

단체전 실수 연발에 개인전 금메달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한국 양궁의 미래 최미선에게도 영광의 하루였다. 최미선은 "단체전에서 긴장을 많이 했다. 잘 쏘려고만 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서 실수를 했다. 개인전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했다. 긴장을 많이 했지만 보배 언니랑 경기를 했다는 것이 영광이다. 지금도 나에게서는 과분한 메달이다. 은메달도 값진 메달이다"고 대회를 감회하는 마음을 전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남자 양궁 '접없는 막내' 이승윤 3관왕

단체전·혼성 이어 리커브 개인전 구분찬 제압 우승

확신은 없지만 도전을 해보겠다던 이승윤(20·코오롱)이 양궁 3관왕이 되어 다시 미스트존(공통취재구역)에 섰다. 양궁 남자대표팀 '막내' 이승윤이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에서 두 번째 3관왕이 됐다. 이승윤은 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구분찬(22·안동대)을 6-0으로 이기면서 대회 세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승윤은 3세트에서도 3발을 모두 10점에 명중시키며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찍 금메달을 확정했다. 이승윤은 "3관왕은 생각도 안 했다. 계속

이날 오전 치러진 남자 단체전에서 첫 금메달을 가져간 이승윤은 '신궁' 기보배와 함께 혼성 결승전에 나서 연달아 금메달을 챙겼다. 혼성 결승전이 끝난 후 "확신은 없지만 3관왕에 도전해보겠다"고 취재진 앞에서 수줍게 소감을 밝혔던 이승윤은 많은 시간도 필요 없이 3관왕이 되어 미스트존에 다시 섰다. 개인전 결승에서 1·2세트를 연달아 가져간 이

김장을 했더니 얼떨떨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선배들이 해왔던 것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승해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메달 결정전에서 김우진(22·청주시청)이 승자가 되면서 한국은 이번 대회 리커브 남자 개인전 시상대를 점령했다. 한국은 10개의 금메달 중 8개를 차지하며 양궁 최강의 자리를 지켰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의 U대회
▲수영=남자 자유형 1500m·점영 100m·평영 50m·배영 200m·계영 4x200m, 여자 배영 50m·자유형 200m 결승(19시·남부대국제수영장)
▲다이빙=혼성 및 남녀 팀이벤트, 남자 플랫폼, 여자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결승(11시·남부대국제수영장)
▲육상=여자 100m 허들(1라운드(9시), 여자 멀리뛰기 결승(12시), 남자 100m 준결승(17시), 남녀 100m 결승(18시35분)(19시30분·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
▲펜싱=플뢰레 남자 단체전 결승(9시), 사브르 여자 단체전 예선 및 결승(12시20분·김대중컨벤션센터)
▲축구=남자 준준결승 한국-우루과이(16시30분·정음종합경기장)
▲골프=남녀 개인 및 단체전 2라운드(8시30분·나주골드레이크)
▲핸드볼=여자 한국-몬테네그로(14시·구례실내체육관), 남자 한국-멕시코(18시·고창군립체육관)
▲탁구=남녀단체전 준결승(17시·장성홍길동체육관)

U대회와 함께 즐겨요
▲광주 피크닉 뮤직페스티벌 M.net 'M 카운트다운' 생방송 9월 오후 6시 광주상무시민공원
▲목요일 열린 국악한마당 '풍물세상 굿패마루' 9월 오후 7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아시아의 불교미술'전 8월2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스코어보드
미국 66:65 세르비아
한국 0:2 캐나다
한국 0:3 핀란드
대만 5:3 미국

광주U대회 메달 순위 (8월 20시 30분 현재)
순위 국가 28 17 14
1 대한민국 28 17 14
2 중국 17 10 8
3 일본 16 14 17
4 러시아 12 19 22
5 미국 12 9 9
6 프랑스 9 4 4
7 이탈리아 6 7 10
8 우크라이나 4 10 5
9 리투아니아 4 1 2
10 영국 2 3 3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시엘병원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